

1. 들어가는 말

복음서의 공통된 기록 가운데 “예수의 세례 받음”(마 3:13-17, 막 1:9-11, 눅 3:21-22, 요1:29-34)에 관한 논쟁은 오래된 역사와 함께 매우 다양한 내용으로 전개되어 왔다.¹ 그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정당한가?’라는 물음과 연관되어 있다.

블트만(Rudolf Bultmann)은 ‘예수의 세례 받음’ 기사 가운데 비둘기로 상징화된 성령의 임재를 메시아적 왕의 선택 사건이라고 해석하였고², 쿨만(Oscar Culmann)은 이 세례를 죄 씻음의 의미가 아니라 죄를 대속하는 예수의 죽음

* 본 논문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연구지원처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임.

1 W. F. Albright and C. S. Mann, *Matthew*, Anchor Bible (AB), vol. 26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2), 31.

2 Rudolf Bultman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허혁 역, 『신약성서신학』(서울: 성광문화사, 1991), 24-25.

을 의미하는 사건으로 해석하였다.³ 네빌(Robert Cumming Neville)은 세례를 단순한 물로 씻음의 의미보다는 말씀 곧 로고스(요 1:1-3a)로서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사역의 시작과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해석했으며⁴, 그린(Joel B. Green)은 예수께서 ‘의’(마 3:15)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을 실현하였고,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책임과 행위의 본이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세례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⁵ 예레미아스(Joachim Jeremias)는 이 세례 의식이 ‘종’으로서의 취임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⁶, 조정철도 죄인이 받는 세례를 예수께서 받으신 것은 ‘고난의 종’으로서 죄인이 받아야 하는 심판을 대신 받음을 예고한 것이고, 동시에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사건이라고 해석하였다.⁷

‘예수의 세례 받음’ 기사의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은 마태복음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킨 사건으로서 세례에 대한 모든 관심이 ‘메시아’와 ‘종’의 주제에 강조점을 두거나⁸ 혹은 ‘하나님의 아들 됨’의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⁹ 하지만 구약의 전통가운데 ‘기름 부음’ 의식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에게 적용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왕과 예언자 전승의 연관성은 여러 주석서들에서 다루어졌지만, 지금까지 제사장 전승과의 연결 가능성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부각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Oscar Culmann, *Die Christologie des Neuen Testaments*, tr. by Shirley C. Guthrie and Chales A. M. Hall, *The Christology of the New Testament* (London: SCM Press, 1963), 67.

4 Robert Cumming Neville, *Symbols of Jes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55-59.

5 P. J. Aichtmeier, Joel B. Green, and Marianne Meye Thompson, *The New Testament: Its Literature and Theology*, 소기천, 윤철원, 이달 옮김, 「새로운 신약성서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19-121.

6 Joachim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정중하역, 「신약신학」(서울: 세순출판사, 1990), 94.

7 조정철, 「마태복음(1)」,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31-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26-129.

8 윗글, 31-32.

9 James D. Dunn, *Jesus and the Spiri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62-67.

본 연구는 ‘미학적 성경주석’(Aesthetic Biblical Interpretation)의 방법론을 사용한 미술과 성서신학의 간학문(interdisciplinary)적이며 통섭(consilience)적인 대화를 위한 연구로서¹⁰, 윤보 김기창의 작품 〈요한에게 세례 받음〉에 반영된 본문 해석의 내용을 도상학적으로(ichnographically) 파악하는 작업을 통해,¹¹ 우선 예술가의 관점에서 이 ‘예수의 세례 받음’ 기사에 관한 본문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¹² 다음 단계에서는 해석의 결과를 단서로 마태복음 3장 13-17절과¹³ 그 배경이 되는 ‘구약의 관련 본문들’을 비교 분석 하는 주석적인 연구 작업을 통하여 ‘예수의 세례 받음’ 기사의 구약적 배경 가운데 하나로서 ‘제사장 위임식’의 연결 가능성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 10 ‘미학적 성경주석방법론’ 혹은 ‘미학적 성서해석방법론’은 예술가의 그림에 나타난 성경 이해와 묘사를 일종의 주석적 결과로 보고 예술적 관점의 성경해석과 그림에 관련된 성경 본문 자체의 성서신학적인 해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통섭적 대화를 통하여 성경 본문의 새로운 의미와 메시지를 찾고자 하는 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진명, “렘브란트와 헤촌 김학수의 작품 해석을 통한 미술과 성서신학의 통섭적 대화를 위한 연구 - 출애굽기의 모세 관련 그림과 성경 본문의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14:21-22; 32:19)”, 『장신논단』 47-1 (2015, 3), 13-40.
 - 11 도상학적 연구의 실제 사례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강승일, “소위 ‘빈 공간 무형상주의’에 대한 도상학적 연구”, 『구약논단』 제27권 1호, 통권 79집 (2021.3), 282-306.
 - 12 윤보의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가 윤보 김기창의 ‘예수의 생애’ 연작 가운데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 본문에 대한 ‘미학적 성경주석’을 이어가는 연속선상의 연구 과정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윤보 김기창의 〈요한에게 세례 받음〉은 ‘윤보문화재단’의 작품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다 (2021.05.11).
 - 13 김기창, 『예수의 생애』(서울: 경민문화사, 1978), 14. 윤보 김기창은 ‘예수의 생애’ 도판집의 〈범례〉항목에서 그림의 순서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네 복음서의 공통점을 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14).

2. 마태복음 3장 13-17절의 '예수 세례' 사건에 대한 주석적 문제

1) 마태복음 3장 13-17절에 나타난 '세례'와 '기름 부음'

마태복음 3:13-17

이때에(Τότε, 토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τοῦ βαπτισθῆναι, 투 바티스췌나이)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πᾶσαν δικαιοσύνην, 파산 디카이오췌넨)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εὐθὺς ἀνέβη ἀπὸ τοῦ ὕδατος, 유무스 아네베 아포 투 휘다토스) 하늘이 열리고(ἠνεώχθησαν αὐτῷ οἱ οὐρανοί, 에네오크췌산 아우토 호이 우라노이) 하나님의 성령이(τὸ πνεῦμα τοῦ θεοῦ, 토 프뉴마 투 떼우)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Οὗτός ἐστιν ὁ υἱός μου ὁ ἀγαπητός, ἐν ᾧ εὐδόκησα(후토스 에스틴 호 휘오스 무 호 아가페토스, 엔 호 유도케사).

헤그너(Donard A. Hagner)는 13절의 τότε(토테, 이때에)라는 표현이 마태가 단락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14-15절도 마태의 특수자료(M)에서 나온 것으로서, 예수께서 회개할 필요가 있었는가의 문제를 내포할 수 있는 '예수의 세례'에 대하여, 공관복음서 가운데서는 마태복음만이 이 문제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¹⁴ 그렇지만 그는 세례 요한과의 대화

14 Donard A. Hagner, *Matthew 1-13*,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3A (Dallas: Word Books, 1993), 54

에서 이미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자의식이 있었으며, 그 권위를 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⁵ 또한 마태복음의 중심개념으로서 δικαιοσύνη(디카이오쉬네, 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메시아로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막 1:4)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성령의 임재를 ‘기름부음’의 의미로 보고, ‘왕의 즉위식’(시 2:2, 7)과 ‘종의 사명’(사 42:1, 61:1)과 연결하여 본문을 해석하였다.¹⁶

알렌(W. C. Allen)도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세례 이전에 초자연적인 탄생 이야기를 이미 앞에 배치해 놓았으며, 3장 16절에서는 ἀπο τοῦ ὕδατος(아포 투 휘다토스, 물로부터)에서 단순히 ‘-으로부터’를 뜻하는 마가복음의 ἐκ(에크, 1:10) 대신에 ‘-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할 수 있는 ἀπό(아포)를 전치사로 사용함으로써 ‘세례’가 예수께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제안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¹⁷ 이러한 설명은 ‘예수의 세례 받음’에 관하여 기록한 본문의 초점이 ‘세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건들에 놓여 있다고 보는 해석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¹⁸

이와 유사한 해석은 누가복음 3장 21-22절의 ‘예수 세례’ 기사를 기록한 본문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예수께서 세례 받는 것에 이 본문의 관심과 초점이 놓여 있지 않고, 그 다음의 ‘성령 임재’와 ‘하나님의 아들 됨’을 승인하는 내용에 강조점이 있다고 보는 해석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¹⁹ 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예수께서 ‘물로 세례 받음’을 명시적으로 언

55.

15 윗글, 55-56.

16 윗글, 55-56; βαπτισθῆναι (Matt. 3:13)

17 W. C. Allen, *ST. Matthew*,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vol. 23 (Edinburgh: T. & T. Clark, 1972), 28-29; Robert H. Gundry, *Matthew*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2), 51-52.

18 Hagner, *Matthew 1-13*, 54.

19 김호경, 「누가복음」, 연세신학백주년기념 성경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105-106.

급한 본문이 가질 수 있는 의미 해석의 가능성 자체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이와는 달리, 클라크(Howard Clarke)는 예수께서 세례 받음과 성령의 임재 기사를 연결하여, 예수의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가 아니라 “성령-세례”(Spirit-baptism)라고 해석함으로써²⁰ 성령의 임재와 물세례 사건을 하나로 결합시켰다. 그러나 이 해석 역시 동일하게 ‘물로 세례 받음’의 의식에 대한 분명한 본문상의 언급을 해석에서 소외시켜버리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예수 세례’ 관련 본문들은 분명히 요단강에서의 물로 받는 ‘세례’와 비둘기같이 임재한 ‘성령’과 ‘하늘의 음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²¹

특별히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2인칭으로 기록한 하늘의 음성을 3인칭으로 변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선포’의 성격을 갖추도록 한 점은 다른 복음서들과 대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²² 마태복음 3장에서 이러한 ‘공식화’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다면, 예수의 ‘메시아’로서

20 Howard Clarke, *The Gospel of Matthew and its Readers* (Bloomington,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3), 2003.

21 요한복음 1장 29-34절의 평행본문은 간접적이며 암시적으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묘사했으며 다음과 같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22 W. C. Allen, ST. *Matthew*, 29.

마 3:17 ...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υἱός μου ἀγαπητός, ἐν ᾧ εὐδόκησ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막 1:11 ... σὺ εἶς υἱός μου ἀγαπητός, ἐν σοὶ εὐδόκησ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눅 3:22 ... σὺ εἶς υἱός μου ἀγαπητός, ἐν σοὶ εὐδόκησ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니라)

활동을 위한 공식 절차와 각각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물’로 세례 받음과 ‘성령’의 임재와 ‘하늘의 음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구약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마태복음 3장의 ‘성령 임재’ 기사가 본문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2) 마태복음 3장 16절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신약의 본문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뜻하는 χρίσμα(크리스마)는 요한1서 2장 20절과 27절에서 3회 사용되었는데, 이 표현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성령’에 대한 언급과 상응하며, 그 내용도 평행을 이루고 있다.²³ 즉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요한 1서 2장의 표현은 요한복음 14장의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말과 주어가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요일 2:20 너희는 기록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χρίσμα, 크리스마)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οἶδατε πάντα, 오이다테 판타).

요일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τὸ χρίσμα)이 너희 안에 거하니(ἐν ὑμῖν μένει, 엔 후민 메네이)...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τὸ αὐτὸ χρίσμα διδάσκει ὑμᾶς περὶ πάντων, 토 아우토 크리스마 디다케이 후마스 페리 판톤)

요 14:26 성령(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토 프뉴마 토 하기온)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ὑμᾶς διδάκει πάντα, 후마스 디다케이 판타)

신약에서 ‘기름 부음’과 관련된 용례들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신

23 Stephen S. Smalley, *1,2,3 John*, WBC vol. 51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4), 126.

약에서 네 번 사용되었으며(눅 4:18, 행 4:27, 10:37-38, 고후 1:21-22, 히 1:9), ‘성령’의 임재 기사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뜻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⁴ 따라서 ‘성령’과 ‘기름 부음’을 밀접하게 연결시킨 신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마태복음 3장 15절의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임재 사건은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기름 부음’의 사건이 의미하는 구약적인 배경

다음 단계로 ‘기름 부음’ 의식이 기원한 구약적인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우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인용한 구약의 본문은 ‘제왕(즉위)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2편의 7절과 ‘고난의 종의 노래’로 알려진 이사야 42장 1절이다.²⁵ 각각의 본문은 ‘내 아들’과 ‘기뻐하는 자’라는 낱말과 관련되어 있다.

시편 2:7b... 너는 내 아들(בְּנִי)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MT בְּנִי אֵתָהּ אֲנִי הַיּוֹם יְלִדְתִּיךָ

LXX υἱός μου εἶ σύ ἐγὼ σήμερον γενέννηκά σε

이사야 42:1a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הִרְצֵהוּ)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MT הֵן עַבְדִּי אֲתַמְּךָ בּוֹ בְחִירִי רְצֵתָהּ נִפְשִׁי

LXX Ἰακωβ ὁ παῖς μου ἀντιλήμψομαι αὐτοῦ Ἰσραηλ ὁ ἐκλεκτός μου προσεδέξατο αὐτὸν ἢ ψυχὴ μου

마 3:17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υἱός μου)이요 내 기뻐하는 자(εὐδόκησα)라 하

24 Ramond E. Brown, *The Epistles of John*, The Anchor Bible (= AB), vol.30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2), 345-346, 359 참조.

25 Craig S. Keener, *Matthew* (Downer Grove, Leichster: Inter Varsity Press, 1997), 86.

시더라

οὐτόχεςτιν ὁ υἱόςμουἀγαπητός, ἐνῶξεδόκησα.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에 대한 언급이 38회 나타나는데, 6회가 대제사장에게 적용되었고, 한번은 바사의 고레스 왕에 대한 언급에서 사용되었으며, 29회가 이스라엘 왕 사울과 다윗에게 적용되었다.²⁶ 주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었다.²⁷ 마태복음 3장 17절 상반절의 ‘내 아들’은 칠십인경(LXX)의 시편 2편 7절의 υἱός μου(휘오스 무)와 일치한다. 하지만 마태복음 3장 17절 하반절의 ‘기뻐하는 자’를 뜻하는 εὐδόκησα(유도케사)는 맛소라 본문(MT)의 הַחֲזַק(라츠타)를 직접 문자적으로 번역한 헬라이어 용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LXX에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을 추가하면서 MT의 ‘기뻐하는 자’ 대신에 προσεδέξατο αὐτόν(프로세텍사토 아우톤, 용납한 자)를 본문에 기록했기 때문이다. 두 본문은, 각각 왕이든 또는 종이든, 둘 다 ‘메시아’ 주제와 관련된 본문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3장이 말해주려고 했던 것은 성령의 오심과 연결된 왕의 ‘기름 부음’(삼상 16:13)과 예언자의 ‘기름 부음’(사 61:1)이라는 구약의 배경들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적 메시아’와 ‘선지자적 메시아’로 증언하려고 했다는 해석의 전통은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성령의 임재’ 기사에 대한 주석적인 전통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공통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26 Jacob Neusner, William Scott Green, Ernest S. Frerichs (ed.), *Judaism and Their Messiahs at the Turn of the Christian Er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2.

27 윗글, 370. 예를 들어,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다윗 왕과 열왕기상 19장 1절의 엘리사 선지자와 레위기 8장 12절의 제사장 아론에게 기름 부음에 관한 명령이나 설명을 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8 Raimond E. Brown, *The Epistles of John*, 345. 브라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도 세례 사건 직후에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신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전히 ‘물로 세례 받음’의 문제와 그 구약적 배경에 관한 해석은 불투명하게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의 단서를 운보 김기창의 한 작품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3. 운보 김기창의 〈요한에게 세례 받음〉에 대한 도상학적 해석과 그림에 나타난 마태복음 3장 13-17절의 구약적 배경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

이연호는 운보의 그림에 대하여 이당 김은호가 조선시대의 화가 혜원 신윤복의 인물화와 단원 김홍도의 풍물화법이 어우러져 있다고 평가하였던 점을 언급하면서, 틴토레토(Tintoretto)와 브뤼겔(Brugel)의 성화들에서 운보의 그림이 영향을 받은 요소들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²⁹ 한국 전통 회화와 서양화의 영향은 〈요한에게 세례 받음〉이라는 운보의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가 그의 스승 벨로치오(Andrea del Verrocchio)와 함께 그린 작품으로 알려진 벨로치오의 〈그리스도의 세례〉에서 운보의 그림과 가장 유사한 구도와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다.³⁰

여기서 그림의 왼편에 있는 두 천사 가운데 등을 보이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올려다보며 그의 옷자락을 들고 있는 좌측의 천사와 멀리 보이는 원경과 예수님 모습의 완성이 벨로치오의 제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 이루어진

29 이연호, “그리스도의 책형, 병자를 고치는 예수 - 한국기독교미술감상3/운보 김기창 화백”, 『월간목회』 통권 235호 (1996. 3), 248.

30 Andrea del Verrocchio (1435-1488), Leonardo da Vinci (1452-1519), 〈Baptism of Christ〉 (1470-1475), oil and tempera on panel, 177×151cm, Uffizi.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he_Baptism_of_Christ_\(Verrocchio_%26_Leonardo\).jpg#/media/File:The_Baptism_of_Christ_\(Verrocchio_&_Leonardo\).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he_Baptism_of_Christ_(Verrocchio_%26_Leonardo).jpg#/media/File:The_Baptism_of_Christ_(Verrocchio_&_Leonardo).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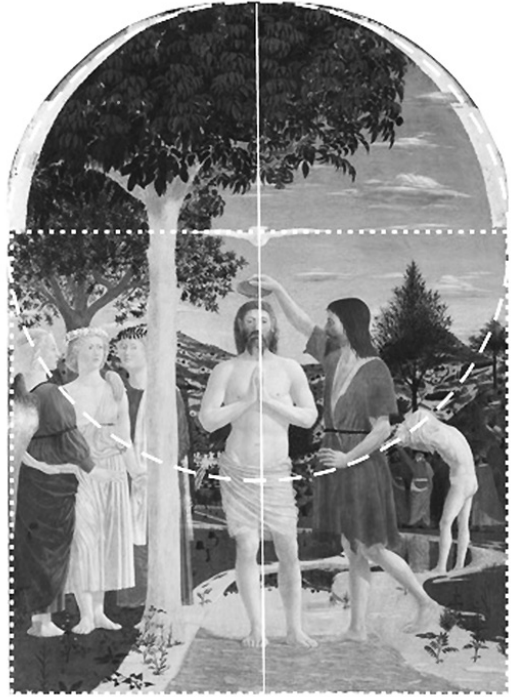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¹ 벨로치오의 그림에서 예수님의 두 손을 모은 자세와 지팡이 형태의 십자가를 요한이 들고 있는 모습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물그릇으로 요한이 물을 붓는 모습의 요소들과 원근법을 사용한 배경 묘사가 운보의 채색 수묵화 〈요한에게 세례 받음〉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벨로치오는 마태복음 3장 16절의 “하늘이 열리고”라는 문장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운

31 Mario Salmi, “1. The Italian Renaissance / Renaissance”, *Encyclopedia of World Art(=EWA) XII* (New York, Toronto, London: McGraw-Hill Book Company, 1966), 1-121 (85-86) ; Alexander Rauch, “Renaissance in Italy”, Barbara Borngässer, Alexander Rauch, Uwe Geese (ed.), *Renaissance* (Bath, New York etc.: Parragon Books, 2009), 244.

보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의 전형적인 모습과 ‘천사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거나 변형시켰으며, 대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줄기’와 ‘선녀’의 모습으로, 보다 역동적이며 생동감 있고 화려한 형태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운보의 작품과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림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Pierodella Francesca)의 〈그리스도의 세례〉이다.³² 1450년대에 제작된 피에로의 그림에서도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와 마른 땅을 밟고 서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성령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그림에 나타난 인물들의 자세와 구도와 소품들이 운보의 그림과 더불어 벨로치오의 그림과도 유사한 점들로 나타나 있다.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두 손을 모은 자세와 물그릇에 물을 담



32 Pierodella Francesca (-1492), 〈The Baptism of Christ〉 (after 1451), egg tempera on poplar wood, 167×116cm, National Gallery.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iero_della_Francesca_Battesimo_di_Cristo_\(National_Gallery,_London\).jpg?uselang=en-gb](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iero_della_Francesca_Battesimo_di_Cristo_(National_Gallery,_London).jpg?uselang=en-gb).

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요한의 모습과 그림의 중앙에 위치한 예수님의 모습과 그림 좌측 천사들의 배치와 원근법을 통하여 가까이 있는 인물들과 점점 작게 그려진 중간의 나무들과 멀리 위치한 산의 배경 등이 앞의 그림과 비교 가능한 요소들이다.

특히 여기서 그림 위쪽의 하늘은 돔 형식의 반원을 보여주지만, 실제 구도는 위쪽의 원과 아래쪽의 사각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사각형과 원의 두 도형이 겹쳐지면서 동시에 사각형의 맨 위와 원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위치에 하얀 비둘기가 배치되어 있다. 기하학적 조화를 이룬 구도의 그림 안에서, 피에로는 하늘과 땅의 세계 사이의 중개자로서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표현하였으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나무 사이의 가운데 서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고, 비둘기와 예수님의 손과 다리까지 일직선을 이루는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³³

서양화가들이 그렸던 ‘예수 세례’ 기사에 관한 그림의 공통적인 요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비둘기 형상의 ‘성령 임재’에 관한 묘사이다. 그러나 운보의 본문에 대한 관점과 해석은 매우 달랐다.

운보의 〈요한에게 세례 받음〉은 6.25 전쟁으로 인한 군산에서의 피난 생활 중이던 1952년에 제작한 30점의 〈예수의 생애〉 연작 가운데 하나이며, 운보는 이 그림을 마태복음 3장 13-17절과 연결된 작품으로 소개하였다.³⁴이 본

33 Barbara Borngässer, Alexander Rauch, Uwe Geese (ed.), *Renaissance, 192-195* 참조; Neil Morris, *The life of Jesus*, 김경은 옮김, 『예수님의 일생』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3), 14, 193. 이 작품은 피에로가 고향인 토스카나의 산 세폴크로에 있는 작은 수도원을 위해 그렸던 그림으로서, 배경에는 고향 마을의 모습이 담겨있으며,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피에로의 기하학과 원근법에 대한 관심을 잘 드러내주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34 김기창, 『예수의 생애』 (서울: 경미문화사, 1978), 10-11, 38-39. 원래 29점으로 제작되었던 〈예수의 생애〉는 어느 서독 신부의 부활절 기념 카드 제작을 위한 그림 부탁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린 그림



문에는 구약의 다른 본문들이 인용되어 있다. 운보가 동양화의 변혁을 시도 했던 점은 원근법을 도입한 입체적 묘사였으며, 그러한 특징은 이 그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³⁵ 그림에서 가장 앞쪽에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요단 강과 그 주변의 수풀들이 묘사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물그릇에 물을 담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있는 모습과 예수께서는 두 손을 모으시고 조용히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중간 위치에는 선녀들이 색동 옷을 입고 악기들을 연주하며 하강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저 멀리 그림의 가장 안쪽에는 산들이 그려져 있다.³⁶

을 추가하여 30점으로 완성되었다.

35 윗글, 11.

36 최경우, “한복 속에 숭고하게 표현된 기독교의 생애”, 김기창, 『예수의 생애』, 89. 최경우는 운보의 그

그림에서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어 흐린 날씨로 묘사되었지만, 그 먹구름을 뚫고 내려 비추는 빛 줄기는 오히려 선명하게 그림의 중앙을 가르며 예수님의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지는 세례 의식의 ‘물’은 단순한 강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과 함께 부어지는 물줄기로 연결되어 있다. 빛 줄기와 연결된 세례의 물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죄 없으신 분’ 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죄 없으신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신약에서는 일관되게 증언하였다(막 10:45). 그러므로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의 물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죄 씻음을 얻기 위해 받았던 세례 의식의 물과 동일한 의미를 지닐 수 없다.

운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줄기와 연결되어 있는 세례 의식의 물줄기를 묘사함으로써 본문 주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중간의 선녀들은 서양화에서 나타나는 천사들을 한국화에 맞게 토착화시킨 가장 한국적인 요소이며³⁷, 운보는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그림을 보는 한국의 관람자들에게 작품 속 인물들에게서 정서적인 친숙함과 익숙함에서 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색동의 한복을 ‘날개 옷’으로 입은 한국적이며 단아한 화려함을 지닌 아름다운 여성들로 선녀들을 묘사하였다. 그들이 연주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동양 악기들은 아름답고 풍부한 음악 소리로 가득한 천상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보통 옛날의 잔치와 행차에서는 북, 장구, 두 개의 피리, 대금, 해금으로 구성되는 ‘삼현육각’(三絃六角)의 풍류를 베풀었으나³⁸, 그림 속 악기의 구성은 ‘삼

림 속 배경이 모두 피난지 근산의 이웃집들과 마을 풍경들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37 운보, 뒷글 11. 운보는 1894년 계일 선교사에 의해 번역 출간되었던 천로역정의 삽화를 그렸던 한 유명화가의 그림을 평가하면서 “그 화가는 천당을 남대문과 같은 눈각으로, 천사를 선녀로 묘사하여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상당히 친근감을 갖게 했다”라고 언급하였다.

38 오주석, 「한국의 미 특강」(서울: 솔출판사, 2003), 53; 최석조, 「신윤복의 풍속화로 배우는 옛 사람들의

현육각'을 온전하게 이루지는 않았다. 운보는 마태복음 3장 17절의 '하늘의 소리'를 말씀 대신에 선녀들의 축하 연주와 음악 소리로 묘사하였고, 하나님의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 시작을 축하하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해석하고 묘사하였다.

운보의 〈요한에게 세례 받음〉은 전통 한국화의 '우상(右上)에서 좌하(左下)로 시선이 흐르도록 하는 화면의 구도와는 조금 다른 화면 구성을 보여준다.³⁹ 우편 위쪽에 그려진 선녀들의 동선이 왼편 아래의 강물 위 수풀에 시선



풍류」, (파주: 아트북스, 2001), 99. 운보의 그림에서는 좌우측의 가장 위쪽 선녀들이 연주하는 두 개의 피리가 보이고, 좌측 열의 가장 아래 왼편의 선녀가 연주하는 형태의 악기는 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측 열의 가장 아래쪽 선녀가 불고 있는 악기는 생황이고, 해금이 아닌 다른 현악기도 있다. 혜원 신윤복의 〈혜원전신첩〉에 수록된 그림 〈뱃놀이〉의 내용 가운데 뱃머리에 앉아 생황을 연주하는 여인의 모습에서 운보 그림에 묘사된 동일한 악기를 확인할 수 있다.

39 오주석, 「한국의 미 특강」, 27 참조. 오주석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시선이 흐르도록 하는 비스듬한 사선 구도가 한국의 전통 그림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고, 그림 위에 X자를 그어서 대각선 방향으로 그림을 보는 것은 서양식 그림 감상의 방식이라고 대비하여 설명하였다.

이 닿을 수 있도록 구성된 그림의 구도는 전통적인 한국화의 구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이지만, 좌편 하늘에서도 선녀들이 내려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전체적인 그림의 구성은 상하와 좌우가 엇비슷한 대칭구조를 이루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운보의 그림은 대각선으로 화면 위에 선을 그렸을 때, 정확하게 그 중심점이 예수님의 얼굴에 놓여 있게 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하늘의 빛 즐기와 함께 하강하는 선녀들이 향한 방향을 연결해 보면 역삼각형의 구조를 그려볼 수 있으며, 동시에 그림의 원거리 배경이 되는 산과 강물의 수풀이 연결된 선은 아래쪽의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좌우 대칭적인 형태를 이루도록 그려진 그림에서 위의 역삼각형과 아래의 삼각형이 만나는 부분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습이 묘사된 구도를 보여준다.

운보는 그의 수묵화 작업에서 그림의 세밀한 구도를 구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예수님을 화면의 가장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마태복음 3장 13-17절의 중심인물로서 예수님이 부각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화면의 구성과 그림의 구도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라는 본문의 표현과도 부합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서양 화가들은 마태복음 3장 13-17절의 모든 내용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여러 장면을 묘사하기보다는 하나의 화면 안에 집합적으로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과 하늘이 열리는 장면과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장면이 한 작품의 화면 안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서양화가들의 성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운보는 <요한에게 세례 받음>에서 서양화의 원근법과 구도와 세부적인 요소들을 활용하면서도, ‘예수 세례’에 관한 본문을 표현했던 서양화의 공통적인 요소로서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과감하게 생략하였고, 하늘의 빛 즐기

와 선녀들의 악기 연주와 음악으로 천상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자 하였다. 운보의 작품에 반영된 기쁨과 축하의 분위기도 그림에 나타난 미학적인 시각화 작업을 통하여 잘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기 직전에 세례 받는 순간을 포착하고, 이 순간에 운보가 집중했던 것이라면, 운보의 그림은 성경 본문에 더욱 충실한 형태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로 세례 받는 동안에 그 다음 순서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운보의 그림에서 ‘성령 임재’ 장면을 생략한 것은 이 그림을 보는 성서학자들에게는 ‘기름부음’의 의식이 아니라, 그 이전의 독립적인 단계와 절차로서, ‘물로 받는 세례 의식’의 의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학적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4. ‘물로 받는 세례 의식’에 관한 구약의 배경 본문 해석

1) 예수님의 ‘제사장적 메시아’ 위임식으로서 본문 해석의 가능성

위더링턴(Ben Witherington III)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마태복음 3장 13-17절의 내용을 첫 번째 정결 의식(세례)과 두 번째 성령의 기름부음 의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솔로몬의 지혜서> 1장 1절의 조명하에 ‘모든 의’를 이루는 왕으로서 공식적인 즉위 선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였으나⁴⁰, 구약에서는 ‘왕의 즉위식’에서 물을 사용한 정결 의식과 기름부음의 두 가지 절차가 실재로 언급된 경우는 없다.⁴¹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을 통해 공식적

40 Ben Witherington III, *읽글*, 81-82.

41 왕상1장 33절과 38절에서는 솔로몬의 즉위식이 기혼샘에서 이루어졌다고 기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석가들은 물로 씻는 정결의식보다는 단지 기름부음 의식이 시행된 장소로서의 의미만 확인하

인 취입이 이루어지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경우들 가운데, 유일하게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물로 씻겨 정결하게 하는 정결 의식과 그 후에 기름을 붓는 의식의 구체적인 절차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기 8:6 וַיִּקְרַב מֹשֶׁה אֶת-אַהֲרֹן וְאֶת-בָּנָיו וַיִּרְחֹץ אֹתָם בַּמַּיִם: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בַּמַּיִם) 그들을 씻기고,

레위기 8:12 וַיִּצַק מִשְׁמֶן הַמִּשְׁחָה עַל רֹאשׁ אַהֲרֹן וַיִּמְשַׁח אֹתוֹ לְקִדְשׁוֹ:

또 관유를(מִשְׁמֶן)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제의적 정결의 절차가 있었고(출 29:4, 40:12), 손과 발(출 30:19-20) 혹은 온 몸을 물로 씻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다.⁴² 레위기 8장에서는 ‘기름 부음’과 ‘속죄제’를 드리는 순서까지 포함하는 위임식 절차를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절차상으로 ‘죄 씻음’의 의미보다는 위임식을 위한 ‘의례적인 정결’을 포함하는 레위기 8장의 제사장 위임식 절차들과 평행을 이루는 요소로 비교해 볼 수 있다.⁴³ 김의원은 제사장 위임식에서 물로 씻는 의식은 속죄의 씻음(레 14:8-9, 15:5-27, 16:26)과는 다르며, 제의적 과정 안에서 그 사람의 위치와 위상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⁴⁴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공적인

였다. James A. Montgomery, *The Books of Kings*, ICC, vol. 6 (Edinburgh: T. & T. Clark, 1976), 77-78; Simon J. DeVries, *1 Kings*, WBC, vol. 12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5), 16-17.

42 John E. Hartly, *Leviticus*, vol. 4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2), 111-112. 에즈라(Ibn Ezra)는 손과 발을 씻었다고 주장했고, 라쉬(Rashi)는 온 몸을 씻었다고 주장했다.

43 Jacob Milgrom, *Leviticus 1-16*, The Anchor Yale Bible, vol. 3 (New He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9), 500-501.

44 김의원,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연구(레위기 8장)”, 『신학지남』통권 제260호 (1999.9), 44-72 (53).

위임식을 선포하는 본문이라면,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에 해당하는 절차와 내용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다.⁴⁵ 왜냐하면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때 신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이해(히 4:14-15)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제사장 위임식’의 개별적인 절차로서 예수님의 ‘세례 의식’(물로 씻음)과 ‘성령의 임재’(기름 부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구약 본문의 다양한 인용과 인유를 통한 마태복음 3장 13-17절의 구약 해석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의 문자적 인용의 형태로서 ‘나의 아들’ 과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들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마태복음의 저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확장된 형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세례’와 ‘성령의 임재’를 ‘물로 씻음’과 ‘기름 부음’의 의미로 해석할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해 보았다.

마태복음 3장 13-17절의 본문은 이를 통하여 왕과 예언자와 선지자로서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은 ‘메시아’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었다. 이 가운데 16절은 에스겔 1장 1절의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는 문장을 포함하는 본문과 내용과 용어에서 밀접한 상호적 연관성과 평행 요소들을 보여준다.⁴⁶

45 스위니(Marvin A. Sweeney)는 스가랴4장(3, 14)의 두 감람나무 환상과 관련된 ‘기름부음 받은 두 사람’을 왕으로서 스투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254). Marvin A. Sweeney, *The Prophetic Literature*, 홍국평 옮김, 「예언서」(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15), 254

46 Daniel W. McManigal, *A Baptism of Judgment in the fire of the Holy Spirit* (JSNTS 595; London etc.: T. & T. Clark, 2019), 147-148. 그말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고, 소명을 경험한 후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했던 에스겔 선지자처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재하는 사건을 목격하였고,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다; 에스겔서에 대한 최근 연구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김주환, “에스겔의 닫힌 입과 열린 입에 관한 묘사가 가진 함의”,

겔 1:1	그밭강 ποταμοῦ τοῦ Χοβαρ	하늘이 열림 ἠνοίχθησαν οἱ οὐρανο	하나님의 이상을 봄 εἶδον ὀράσεις θεοῦ
마 3:16	요단강 (3:13) Ἰορδάνην	하늘이 열림 ἀνεψύχθησαν αὐτῷ οἱ οὐρανοί	하나님의 성령을 봄 εἶδεν τὸ πνεῦμα τοῦ θεοῦ

그렇다면 마태복음 3장은 레위기 8장과 이사야 42장과 에스겔 1장과 시편 2편의 상호적인 연관성을 통하여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의 연결점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본문들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주제를 담는 동시에 ‘고난의 종’으로서 ‘메시아 주제’와 복합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⁴⁷ 이러한 특징은 구약의 다양한 전승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성격을 잘 드러내 주는 증거들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했던 마태복음의 관심과 주제들은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의 세례 받음’ 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⁴⁸

5.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예수그리스도의 세례 받음’ 기사에 나타난 세례의 정당성 문

⁴⁷ 「구약논단」제27권1호, 통원 79집 (2021. 3), 36-60.

⁴⁸ W. F. Albright and C. S. Mann, *룻글*, 31-32참조.

⁴⁸ Andrew S. Malone, *God's Mediators-A biblical theology of priesthood* (Downers Grove: IVP, 2017), 103-106. 멜론은 복음서의 내용들 가운데 죄사함(레 10:17/막 2:1-12),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칭호(시 106:16/눅 4:34, cf. 레 21:6),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종교개혁 이래의 일부 전통), 정결함의 구별(막 7:19/레 10:10) 등의 요소들이 예수의 제사장적 이미지에 관련된 평행 자료로 논의되었던 점들을 언급하지만, 예수님의 제사장적 역할이 복음서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경우는 다르다(106).

제와 구약적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오래된 물음에서 출발하였으며, 구약과 신약 및 성서신학과 미술간의 대화를 통한 간학문적이며, 통섭적인 연구의 시도와 결과이다.

마태복음 3장 13-17절의 본문에 반영된 여러 가지 구약적인 전승과 내용과 요소들이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으로서 메시아 주제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결론은 구약의 관련 본문들을 근거로 하는 해석의 결과였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표현했으며(히 2:11, 17; 7:26),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⁴⁹ 마태복음 3장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음은 ‘죄 씻음’의 의미보다는 레위기 8장의 제사장 위임식 절차로서 ‘정결 의식’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해석의 가능성을 본 연구의 논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할 수 있었던 출발점은 운보의 작품 〈요한에게 세례 받음〉에 관한 분석과 다른 작품과의 도상학적인 비교 연구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운보의 새로운 본문 해석과 예술적인 상상력의 표현을 확인하고 미술과 성서신학의 간학문적인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찾을 수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다. 운보는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는 마태복음 3장 13-17절의 본문과 내용을 한국의 기독교인 예술가로서 독창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운보는 서양화로만 여겨지던 성화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전통 한국화의 기법을 사용하여 본문 해석의 결과를 표현함으로써, 기독교의 토착화를 시도를 했던 것으로

49 Oscar Culmann, *빛글*, 89-107 (93). cf. 마 19:17과 막 10:18.

평가되기도 했다.⁵⁰ 예술적인 상상력과 미학적인 관점에서의 특정한 성경 본문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의 시도는 미술작품의 전통과 예술계에서뿐만 아니라, 성경본문의 전통적 읽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성서신학적 해석의 시도를 위해서도 신선한 자극과 새로운 도전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6. 참고문헌

- 강승일, “소위 ‘빈 공간 무형상주의’에 대한 도상학적 연구”, 『구약논단』제27권 1호, 통권 79집 (2021.3), 282-306.
- 김기창, 『예수의 생애』, 서울: 경미문화사, 1978.
- 김주환, “에스겔의 닫힌 입과 열린 입에 관한 묘사가 가진 함의”, 『구약논단』, 제 27권1호, 통권 79집 (2021. 3), 36-60.
- 김의원,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연구(레위기 8장)”, 『신학지남』통권 제260호 (1999.9), 44-72.
- 오주석, 『한국의 미 특강』, 서울: 솔출판사, 2003.
- 이연호, “한국인이 그린 예수상”, 『신앙세계』, 통권 261호 (1990.4), 131.
- _____, “그리스도의 책형, 병자를 고치는 예수 - 한국기독교미술감상3/윤보 김기창 화백”, 『월간목회』통권235호 (1996. 3). 248.
- 조경철, 『마태복음 (1)』,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31-1, 서울: 대 한기독교서회, 1998.
- 최경우, “한복 속에 숭고하게 표현된 기도의 생애”, - 김기창, 『예수의 생애』, 서울: 경미문화사, 1978,8-9.
- 최석조, 『신윤복의 풍속화로 배우는 옛 사람들의 풍류』, 과주: 아트북스, 2001.
- Achtmeier, P. J., Green, J. B., and Thompson, M. M., *The New Testament: Its Liter-*

50 이연호, “한국인이 그린 예수상”, 『신앙세계』, 통권 261호 (1990.4), 131 참조.

- ature and Theology*, 소기천, 윤철원, 이달 옮김, 「새로운 신약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Albright, W. F. and Mann, C. S., *Matthew*, Anchor Bible (AB), vol. 26,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2.
- Allen, W. C., ST. *Matthew*,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ICC), vol. 23, Edinburgh: T. & T. Clark, 1972.
- Bultmann, R.,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허혁역, 「신약성서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1.
- Clarke, H., *The Gospel of Matthew and its Readers*, Bloomington,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3.
- DeVries, S. J., *1 Kings*, WBC. vol. 12,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5.
- Dunn, J. D., *Jesus and the Spiri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 Gundry, R. H., *Matthew*,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2.
- Hartly, John E. *Leviticus*, vol. 4,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2
- Jeremias, J., *New Testament Theology*, 정충하역, 「신약신학」, 서울: 새순출판사, 1990.
- Keener, C. S., *Matthew*, Downer Grove, Leichster: Inter Varsity Press, 1997.
- McManigal, D. W., *A Baptism of Judgment in the fire of the Holy Spirit*, JSNTS 595; London etc.: t&tclark, 2019.
- Andrew S. Malone, *God's Mediators-A biblical theology of priesthood*, Downers Grove: IVP, 2017.
- Milgrom, J., *Leviticus 1-16*, The Anchor Yale Bible. vol. 3, New He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9.
- Montgomery, A. J., *The Books of Kings*, ICC. vol. 6, Edinburgh: T. & T. Clark, 1976.
- Morris, N., *The life of Jesus*, 김경은 옮김, 「예수님의 일생」,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3.
- Neusner, J., Green, W. S., Frerichs, E. S., (ed.), *Judaism and Their Messiahs at the*

- Turn of the Christian Er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Neville, R. C., *Symbols of Jes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Rauch, A., “Renaissance in Italy”, Barbara Borngässer, Alexander Rauch, Uwe Geese (ed.), *Renaissance*, Bath, New York: Parragon Books, 2009.
- Salmi, M., “1. The Italian Renaissance / Renaissance”, *Encyclopedia of World Art* (=EWA) XII, New York, Toronto, London: McGraw-Hill Book Company, 1966, 1-121.
- Smalley, S. S., 1,2,3 *John*, WBC vol. 51,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4.
- Sweeney, M. A., *The Prophetic Literature*, 홍국평옴김, 「예언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he_Baptism_of_Christ_\(Verrocchio_%26_Leonardo\).jpg#/media/File:The_Baptism_of_Christ_\(Verrocchio_&_Leonardo\).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he_Baptism_of_Christ_(Verrocchio_%26_Leonardo).jpg#/media/File:The_Baptism_of_Christ_(Verrocchio_&_Leonardo).jpg).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iero_della_Francesca_Battesimo_di_Cristo_\(National_Gallery,_London\).jpg?uselang=en-gb](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iero_della_Francesca_Battesimo_di_Cristo_(National_Gallery,_London).jpg?uselang=en-gb).

검색어

예수의 세례 받음

제사장 위임식

기름부음

미학적 성경주석

**An Aesthetic Biblical Interpretation on <Baptism of Christ>
- A Study of Unbo Kim Ki-Chang's <Baptized by John> and
Relating texts (Matt. 3:3-17, Lev. 8:6, 12)**

Jin-Myung Kim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is a study for interdisciplinary dialogue between art and biblical theology using the commentary methodology of ‘Aesthetic Biblical Interpretation.’ First, it examines how the textual understanding of this ‘Baptism of Jesus’ was derived from the artist’s point of view in Unbo Kim Ki-Chang’s work, <Baptized by John>. The iconographic methodology was applied to the interpretation of his Korean-style painting. The next step conducts an exegetical study of the text for the “Baptism of Jesus” in Matthew 3 and the “Old Testament-related texts” as its background, using the result of the interpretation of Unbo’s work as a clue.

The main New Testament focus text of this paper is Matthew 3:13-17.

Unbo adopted this text as a background text linked to the work 〈Baptized by John〉. Accordingly, the current study of ‘Aesthetic Biblical Interpretation’ begins with a discussion of this text. In this process, through analyzing and comparing the New Testament text in relation to the pertinent Old Testament texts as its background, this study proposes the “priest commitment ceremony” (Lev. 8) as the Old Testament background for the “Baptism of Jesus.”

Key Words

Baptism of Jesus

Priest commitment ceremony

Anointing

Aesthetic biblical interpretation

- 투고일: 2021년 4월 14일
- 심사일: 2021년 4월 29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8일